

# ‘용두사미’ 광주경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 특별수사팀 경찰 등 상대 3개월 수사 일단락 경찰관 2명 송치...1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무리한 수사 지적에 “공정·객관성 유지 최선”

광주지방경찰청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 특별수사팀(이하 TF팀)의 경찰 정보 유출 관련 수사가 일단락됐다.

의혹적 출발과는 달리 잡음과 생체기만 남긴 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에 TF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 TF팀은 이날 광주경찰청 소속 A 경감과 동부경찰서 소속 B 경장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경감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B 경장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변호사 1명과 일반인 1명, 경찰관 2명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이 광주 지역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 불거졌다.

광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의 수사 대상이었던 C 씨가 경찰이 변호사에게 부동산 수사정보를 알려줬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의혹의 대상은 A 경감이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10여 명의 경찰관으로 TF팀을 긴급 구성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검찰 부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의 절차를 뛰어넘는 TF팀의 구성은 당시 광주경찰청 내부에서도 이례적 일로 받아들여졌다.

TF팀은 A 경감 등 3~4명의 경찰관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해당 경찰관들은 “TF팀이 강압적이며 불법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른바 별건 수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으려 한다. 면치될 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A 경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가 동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인 부동산 사건에 대해 물어왔다. 우회적으로 사건 내용을 물어봤더니 ‘사건이 중요하다’고 해 더이상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TF팀의 무소불위적 수사 행태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TF팀은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되돌아 왔다.

애초 수사선상에 올려졌던 다른 경찰관들에 대한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관련 부동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한 B 경장에 대해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B 경장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이라며 입건 당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TF팀은 해당 변호사를 구속했지만, A 경감과의 공무상비밀누설 관계는 입증해 내지 못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C 씨에게 수입료 이외 인사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일 뿐 기소 시점 현재 A 경감의 혐의와는 무관하다.

“TF팀의 수사를 지켜왔다”는 한 경찰관은 “결과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성급한 판단과 함께 별건 수사 등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경찰관은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다. 철저히 수사했음에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마무리 할 줄도 알아야 한다. TF팀은 이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결국 조직 내 상처만 남겼다”고 말했다.

TF팀 관계자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한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같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제막 언론자유 상징 조형물 ‘굽지 않는 펜’ 제막식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참석자들이 조형물을 제막 하고 있다.

##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자산매각명령 신청”

### “미쓰비시 교섭 요청 묵살 유감...강력 법적 조치 할 것”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은 16일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교섭 요청을 또 묵살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90이 넘는 고령이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2019년 6월 21일 미쓰비시 측에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2018년 11월 29일)에 따른 이행과 강제징용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

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에도 교섭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혐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측은 교섭요청에 묵묵부답이었으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측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요구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

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 지난 1월 김중곤 유족, 심신애·이영숙 피해자가 지병 등의 이유로 별세했다.



## 광주서 유리창 나르던 작업자 2명 부상

16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1t 트럭에 실려 있던 유리창이 작업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자 A(43) 씨 등 2명이 유리 파편을 맞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창틀과 유리창을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폐유 무단투기 선장 용기 실명제 통해 적발

폐유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탄유 용기 실명제’를 통해 폐유를 무단 투기한 7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6일 폐유가 들어있는 통 수심계를 버린 선장 A(72)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통 수심계를 완도항 1부두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폐유통을 수함에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수거할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쓰레기 적치 장소에 폐유통 수심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유탄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했다.

해경은 “A씨에게 폐기물 관리법 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 휴대전화 판매점 턴 청소년 8명 검거

광주에서 1분만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털고 달아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휴대전화 판매점과 차량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A(20)씨와 B(17)군을 구속하고, C(17·여) 등 여자 청소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3시 21분께 광주 광산구 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강화유리를 망치 2개로 부수고 침입해 스마트폰 7대(43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와 북구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20여 대에서 21차례에 걸쳐 10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장에서 훔친 대형 망치 2개로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틀 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점에 침입해 스마트폰을 쇼퍼백에 담아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1분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실 경비업체는 경보음이 울린 직후 2분 만에 출동했으나 이들을 붙잡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형택 기자

## 이웃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검거

부산사하경찰서는 16일 시비를 벌이던 이웃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54)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57)씨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던 중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이후 귀가했다가 B씨의 상태가 걱정돼 오전 5시 38분께 다시 B씨의 집을 찾았고,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의 상해(지난해 5월) 신고로 인해 지인이 구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사과를 받으려 갔다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